

원자력 여론 조사에 관하여

Ann S. Bisconti

Bisconti Research사 사장

원자력에 대한 지지의 과소 평가

여론(public opinion)과 공표된 의견(publicized opinion)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여론 주도층에 대한 조사 결과, 지도자들은 대체로 원자력을 지지하지만 공중의 성향에 따라 표면적인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국회 직원들에 대해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원자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응답자의 대부분(82%)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응답자 중 43%만이 유권자들이 그러한 견해에 동조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공중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가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

으며, 지지도는 지역적으로 유사하였다.

하나의 문답으로 전체를 알 수 없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지지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한 두가지 질문으로 모든 것을 알 아낼 수는 없다.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샘플에 대한

인터뷰 수행 결과는 <표 2>와 같다.

96년 6월 현재, 53%가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6%는 반대, 11%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이 수치들은 다소 모순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타당한 것이다.

여론은 필요성의 인식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공중은 태양 에너지를 선호하고 원

<표 1>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여론 조사

"당신은 미국에서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원자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공중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공중은 미국에서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는 데 원자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구 분	국회 직원의 의견(%)	유권자의 의견(%)	실제 공중의 의견(%)	
중 요 함	82	43	70	
중 요 치 않 음	16	40	24	
확 실 치 않 음	3	17	6	
주: 1. 95년 3월 한달 동안 국회 에너지 분야 직원 258명과 전화 인터뷰 시행(QS&A Research). 대표적인 샘플은 정당, 지역 및 투표 기록에 근거함.				
2. 미국 전체에서 대표적인 성인 1,000명에 대한 전화 조사는 96년 3월에 실시함(96. 3, Bruskin/Goldring Research)				

〈표 2〉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조사

구 분	평균(%)
기존 원전의 존속 필요	76
신규 원전 추가 건설 필요	74
원자력 에너지 이용 필요	52
신규 원전 즉시 건설 필요	15
주: 90~96년 사이에 Bruskin/Goldring Research에서 수행	

〈표 3〉 신형 원전 건설에 대한 여론 조사

"미국에서 개발된 신형 원전이 이미 일본과 한국에서 건설중에 있다. 만약 당신이 사는 지역에 어떤 형태건 신규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할 경우, 신형 원전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Bruskin & Goldring, 95. 12)	
구 분	비율(%)
미 국 전 체	72
동 북 부	71
중 북 부	75
남 부	72
서 부	70

자력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미래의 에너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들 모두는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어떠한 종류의 발전소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어떠한 종류의 에너지원이라도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NIMBY를 타하지 말라

대부분의 여론 조사에서 원전 주변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미국, Hanford)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원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가동중 원전을 폐쇄하기 위한 주민 투표가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다만 캘리포니아주의 한 지방자치 단체에서 소유한 원전이 지역 주민 투표에 의해서 폐쇄된 적이 있을 뿐이다).

일반 공중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원전이 건설된다는 것에 대해 패념치 않는다.

미국에서 개발된 신형 원전이 일본과 한국에서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시 자신들의 지역이 신규 원전 부지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에 거부감을 갖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4개 지역 전체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고한 의견은 없다

Daniel Yankelovich에 의해서 개발된 'Mushiness Index' 측정법을 적용해 본 결과, 미국원자력협회는 조사자의 각 5%가 원자력에 대한 강한 지지와 강한 반대 입장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90%는 확고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

패널 조사(Panel Survey)는 공중이 자신들의 의견을 수시로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인에 대한 원자력 정보의 감소

91년과 95년 사이에 원자력에 관한 제반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62%에서 39%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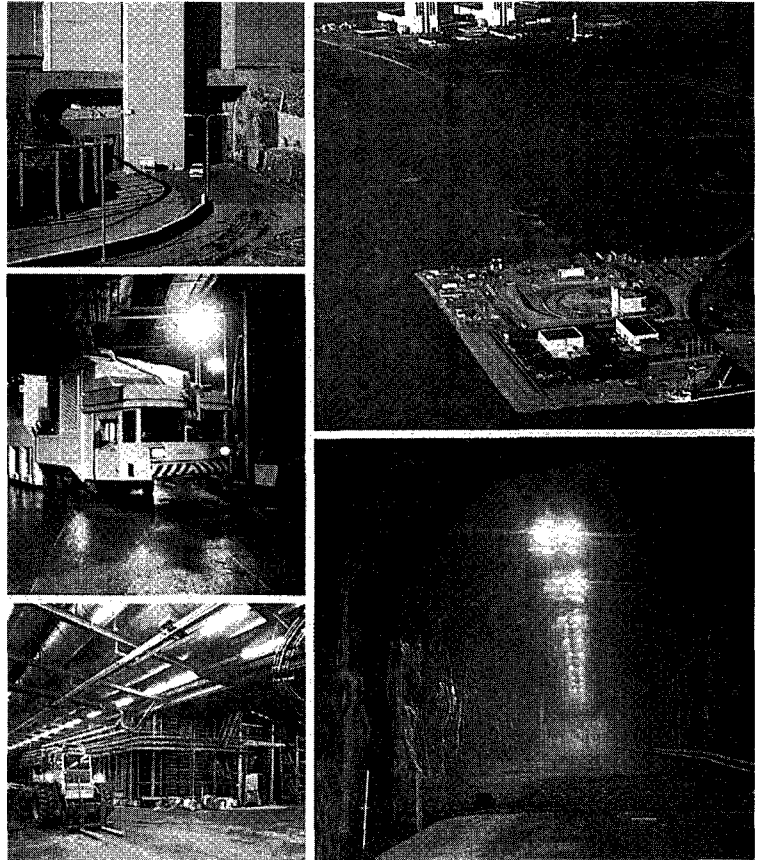
에너지 문제는 점차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관심 밖으로 멀어지고 있다.

“당신은 원자력 관련 문제에 관하여 얼마나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또는 아주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91년 2월에 62%, 95년 4월에 39%였다.

일반인의 에너지 지식 수준의 낮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기가 어느 곳에서 생산되는지, 무엇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탄 화력의 기여도를 과소 평가하고 있으며, 원자력의 기여도를 과대 평가하고 있다.



스웨덴의 Forsmark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여러 모습

(표 4) 에너지 문제에 대한 여론 조사

*여기에 전력 생산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원 목록이 있다.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는 어느 에너지원이 주요 전력 생산용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구 분	1985(%)	1995(%)	1995년도의 실제 사용량(%)
원 자 력 에 너 지	30	25	20
태 양	26	33	0.02
석 탄	15	4	51
수 력	10	11	8
가 스	7	14	15
석 유	6	3	3
풍 력	2	1	0.1
알 수 없 음	3	8	-

주 : 85년의 전국적인 조사(Cambridge Reports), 95년의 전국적인 조사(Bruskin/Goldring)

보기가 주어지지 않은 질문을 해 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원자력 에너지의 환경 기여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에서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량 감소 효과는 9,400만대의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과 같다.

원자력 에너지가 환경적으로 이롭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5%, 원자력 에너지가 환경적으로 해롭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4%였다(Bruskin/Goldring, 94년 9월).